

# TRANS- HUMANITIES

---

**Title : 한국소설의 흑인상을 통해 본 한국 가족의 탈경계적 전망**  
**Beyond the Significance of a Boundary: Korean Families'**  
**Images of Blacks in Korean Novels**

Author(s) : 한명환 (HAN Myeong Hwan)

Source : *Trans-Humanities*, Vol. 4 No. 3 (2011), pp. 193-219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http://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W WOMANS UNIVERSITY

## 한국소설의 흑인상을 통해 본 한국 가족의 탈경계적 전망

한명환

### 1. 문제제기 - 한국현대소설에서 흑인이라는 타자성

흑인은 한국의 식민지 시대에서 탈식민 시대로 변화되어 가는 도중에 한국과 외세 사이에 끼어든 틈새이다. 그들은 점령군으로 들어왔지만 일본군이나 백인과 같은 제국주의자가 아니다. 한국인에게 ‘흑인’은 해방공간과 한국전쟁, 분단시대 동안 미국인으로 한국에 주둔한, 이른바 바바가 말하는 ‘제 3의 간극’, 틈새에 해당된다. 왜냐하면 흑인은 미국인 이면서도 한국인에게 멸시받아온 인종이었기 때문이다. 본고는 해방 이후 한국 소설 속에 등장해 온 배타적인 흑인 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흑인을 배척하게 된 원인을 탈식민적 이론으로 접근하여 가족 집합성과 관련지어 봄으로써 새로운 다문화 가족 집합성의 탈경계적 전망에 대해 심사숙고하고자 한다. 본고는 또한 가족 집합성을 어느 한 관점에서만 해석하는 억압적 담론을 배제하고 차이와 다원성을 인정함으로써 가족

---

한명환 안양대 교양학부

www.kci.go.kr

개념을 탈경계적으로 확장하여 사고하고자 한다(김영룡 225).

해방공간에서 외국인의 개입은 일제에 훼손당한 민족적 자존심을 더욱 자극하였다. 해방공간의 소설에 나오는 ‘코쟁이’, ‘뽕코’, ‘흰둥이’, ‘검둥이’, ‘검둥이’, ‘양갈보’, ‘튀기’ 등 비어에 담겨있는 반감이 그것이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강대국에게 훼손당한 자존심을 명분상 보상받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나온 자연스러운 형태의 배타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종차별감정에 미국은 한국인들에게 청교도들인 WASP(White Anglo Saxon Protestant)가 건국한 나라로서, 흑/백의 관계를 어둠/빛, 죄악/선의 대립으로 꾸준히 인식시켜왔다. 한국 현대소설들은 이러한 문화적 개입과 약육강식의 집합적 경계를 무의식중에 받아들였다(가야스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72). 한국인의 흑백차별의 무의식 속에는 데리다가 지적한 ‘우정의 정치학’과 같은 담합이 존재한다(가야스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68). 정교하게 짜여진 정치적 이해관계는 흑인을 배척하고 백인과 ‘제휴’(affiliation)하게 한다. 새로운 제휴관계는 초개인적인 형태들이라고 보이는 것들, 즉 길드의식, 합의, 대학동료, 직업적 존경, 계급, 지배문화의 헤게모니 같은 것들로 바뀐다(김상률, 오길영 118). 한국의 반전, 반미소설들은 미군들을 ‘양키’라고 부르며 백인 중심의 미국을 비난한다. 그러나 소설 속에서 흑인은 더 악의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유교적 가족의 구성원들은 ‘검둥이’에 더 반발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한국작가들은 소설과 같은 감성적 글쓰기를 통해 배척과 제휴를 수행한다. 흑인 배척과 백인 제휴의 글쓰기 뒤에는 한국인들의 가족 집합성의 경계가 숨어있다. 즉 한국소설들은 흑인의 배척과 백인과의 제휴를 통해 더욱 결속된 유교적 가족의 확장된 형식인 배타적 민족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해방이후 분단시대의 실상을 보여준다.

해방은 생각지 않은 외래인종을 ‘마마손님’처럼 불러들인 결과로 얻어진 것이었다. 미군은 소련군대와 달리 갑자기 준비 없이 점령군이 되어

남한에 들어온 탓에 이에 대해 한국인들은 당혹스러워했고 그들에게 공감을 갖기 어려웠다. 해방기 신문 잡지 연재소설들은 미국에 대한 호, 불호의 양면성을 그대로 반영한다. 미국의 경제원조물자는 한국사회의 부정부패로 군인들의 외출은 양공주와 댄스홀, 유부녀, 미망인 ‘아프레 켈’들의 탈선과 풍기문란으로 이어져 갔다. 반면에 전시 한국 신문에는 미군을 천사, 북한을 악마나 사탄으로 보는 연재물들이 등장하게 되고 소설들조차 반공이데올로기로 후방의 선무역할을 맡게 된다.<sup>1)</sup> 대외적으로는 미군은 해방군이었고 은인이었다. 흑인 역시 미군으로서 한국에 입국하였다.

지금까지의 한국소설에서 흑인이 긍정적으로 바라보여지거나 수용된 적은 거의 없다.<sup>2)</sup> 인간에게 진실은 역사보다 시(포이에시스)에 있다고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한국소설에 기록된 흑인에 대한 느낌과 상상은 역사보다 더 진실되게 한국인들의 흑인에 대한 모습을 반영해 왔다. 소설은 그 자체로서 신문 등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민심의 진정성을 담고자 하였고 또 그것을 기정사실로 믿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해방 이후 한국의 가족집합성에 끼어든 흑인은 들뢰즈식으로 말하면, 한국적 삶의 일상성 속에 ‘사건의 특이점’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특이점을 소설을 통해 분석하는 일은 최근의 전지구적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의미있는 경계점을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외증에, 짚고 나가야 할 오래된 숙제가 있다면 우리 한국인에게 전통 가족의 집합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현대한국소설에서 재현되어온 ‘흑인이미지’를 탐구하는 것은 이러한 한국의 전통적 혹은 유교적 가족 집합성의 진정성과 가치를

1) 당시 1951년 전시 신문 『천주교회보』의 인공치하 체험수기「밤의 일기」등에서는 미국은 구세주, 은인으로 북한과 소련은 악마 혹은 사탄으로 표현되어 있다 (최민순, 「밤의 일기」, 『천주교회보』, 1951.3.20-1953.2.5).

2) 김수정 씨의 〈아기공룡 둘리〉(1983)에서도 ‘마이콜’은 외계에서 온 아이들과 소통하며 의사와 웃음을 선사하는 매우 긍정적 인물이지만 외롭다. 소설에서 이런 정도의 흑인 투기가 등장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역으로 자리매김하는 방편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 2. 해방공간에서의 흑백차별과 파시즘 경계

해방공간에서 ‘혼혈아’는 한국인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였다. 혼혈아는 굴욕적인 한반도 역사와 대면하게 하는 고통의 증거로서, 부정되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군대가 해방군이 아닌 점령군으로 남한에 진주하자, 한국인들은 점차 미군들이 일제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점령군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되자 그들을 의구심과 의혹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 와중에 한국인들은 흑인을 차별하여 받아들였다. 이러한 차별의식은 일부 서구 백인들의 제국주의 담론과 맞아떨어졌다. 백인이란 비백인의 피가 한방울도 섞이지 않은 인종을 말하기 때문이다. 잡종성 배척의 논리는 폐쇄적인 나치즘이나 제국주의 담론과 크게 다를 바 없었다. 탈식민적인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파생(filiation)과 제휴(affiliation)의 이중성을 드러낸다.<sup>3)</sup> 파생은 자연적인 유대관계로, 복종, 두려움, 사랑, 존경, 본능적 갈등을 포함하는 형태들로 결합된 것이라면 제휴는 보다 새로운 지배문화 헤게모니와 결합하는 것이다. 해방공간에서 한국인들은 새로운 지배문화의 주체로 등장한 백인과 제휴하면서 자연적으로 흑인을 배척한다. 흑인에 대한 한국인의 배타적 감정에는 유교적 혈통주의에 따른 자연적 원인도 있으나 백인문화와의 제휴에도 그 뿌리가 있다.

주요섭 「혼혈」과 염상섭 「양과자갑」은 해방공간에서의 혼혈, 특히

---

3) 탈경제적 혼종성은 식민지 현실로부터 발생되어 에드워드 사이드의 ‘파생’과 ‘제휴’의 틀을 통해 탈식민적, 탈경제적 영토를 확보하게 되어간다. ‘제휴’(affiliation)개념은 김상률, 오길영 역음, 『에드워드 사이드 다시읽기-오리엔탈리즘을 넘어 화해와 공존으로-』. 서울: 책세상, 2006. 118-119 참조.

흑인 혼혈에 대한 탈식민적 이중성을 재현한 소설이다. 주요섭의 「혼혈」(1947)에서는 양공주인 딸(김소사)이 흑인군인 사이에서 혼혈아를 낳자, 딸의 어머니는 대뜸 아이를 땅 속에 묻어버린다는 내용이 나온다. 작가는 그 아이를 낳았을 경우, 후손 중에 흑인이 나올 확률에 대해 멘델의 법칙까지 들어가며 섬세한 고찰을 하고 있다. 만일 혼혈아 아이를 낳아 길렀을 경우, 피부색이란 유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어느 순간 후대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나중에 5대쯤 가서 혼혈아 혈통이 나타나 그때 후손들은 얼마나 큰 낭패감을 맛볼 것인가를 생각해본다면, 혼혈아를 낳자마자 묻어버리는 김소사 어머니의 행위는 어찌보면 당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섭의 「혼혈」은 또 ‘흑인’에 대한 배타성이 곧 우리 안의 파시즘이 아닌가를 지적한다. 주요섭은 “장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혼혈아의 자손들을 어떻게 대우하여야 옳을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는 미국 미씨피주의 봉건주의적 법령을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저 - 독일의 히틀러 같은 폭군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없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고 대책을 내세운다. “편견을 배격하고 아모리한 복잡한 피의 혼혈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우리나라 땅에서 나서 자라서 국가에 대하여 유용한 봉사를 하는 한 절대로 아모런 차별도 없이 평등한 기회를 공급할 수 있는 아량을 갖어야 될 것이다”(144)는 주장은 당시의 한국적 혈통주의 가족을 생각해본다면 진보적인 이상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염상섭 「양과자갑」(1948)에는 이러한 생각을 비롯하거나 하듯, 흑인에 대한 명백한 일반인들의 차별감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다. 염상섭 「양과자갑」에서는 흑인을 상대하는 김안라와 백인을 상대하는 미스리 두 명의 양공주가 대조된다. 미스리는 백인을 상대하는 양공주로 얼굴 빛도 백인처럼 희다. 그녀의 외모는 어느 한구석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아름답다. “생글 웃어 보이는 모습이 저번 흑구자와는 딴판이다. … 원

체 천성이 고흔지 붙임성이 있고 귀여운 맛도 있어 보이는 얼굴이다”. 반면에 흑인을 상대하는 양공주 김안라는 보기가 먼구스럽고 속이 느글 느글할 정도로 거부감이 생기는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얼굴 전체를 검승하게 꾸미고 눈가를 회색 빛갈로 더 거섬치레하게 펴끼칠 하듯이 칠한데다가 눈썹은 꼬리끼를 받은 각고서 학교아이의 예노구를 발랐는 지 여기에는 구동색 칠을 한줄기 살짝 그어”, “이것은 어느나라 화장술 인지 그러고 보니 아난게 아니라 황인종과 흑인종의 티기 같기도 하다” 고 보배 엄마 영수부인은 생각한다(염상섭 83).

「양과자갑」이 흑인에 대한 막연한 반감을 심정적으로 토로한다면 「혼혈」은 보다 반성적이다. 주요섭의 「혼혈」은 흑인 혼혈아 살인 사건을 통해 본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인류 평등적인 판단, 즉 이성적이고 지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 「양과자갑」은 해방기에 가지려고 하였던 흑인종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이성적 판단<sup>4)</sup>이 한낱 탁상공론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알게 해준다. 한국인들의 피지배자로서의 흑인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은 낯설음에 대한 경계심과 함께 착잡하게 교차된다. 한국인들은 백인 지배자와 동일시함으로써 흑인과 가까운 양갈보나 흑인 혼혈아를 적대시하는 이중적 감정을 갖게 된다. 소설 속의 한국인들은 흑인이나 양공주, 흑인 튀기에 대한 피해의식을 보여줌으로써 문화제국주의자들과의 제휴관계를 긍정하는 동시에 스스로 보상받고자 하는 것이다. 흑인과 겪는 갈등은 말 그대로 식민 지배를 받은 한국인들이 겪어온 탈식민적 이중성에서 비롯된다. 바바식으로는 혼종성의 틈새이며 사이드의 말로는 ‘파생’과 ‘제휴’ 사이의 이중성일 것이다. 흑인에 대한 역겨움과 배제심리가 ‘파생’이라면 패배주의적이고 자기비하적인 데서 백인과 최소

4) 염동섭은 그의 논문 「색 있는 슬픔의 연대성-해방기의 흑인시 연구」에서 한국 문단에서 흑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1930년대 한홍구, 김종육 이후 관심을 끌기 시작, 해방기의 배인철 등에 의해 흑인시들이 본격적으로 번역 소개되었음을 소상히 밝힌다. 한국문단에서 최소한 흑인의 문학정신에 공감대를 갖고자 형성하고자 한 노력이 보였음을 알 수 있다.

한 통일시하고자 하는 욕망은 '제휴'에 가까울 것이다.

### 3. 한국 전쟁, 소설 안에서의 파시즘

한국전쟁 당시 흑인병사들은 '버팔로'라는 별명을 갖고 별도의 흑인사단으로 불려온 92보병사단이 편성되기도 했었다고 하나, 해병대1사단과 제7보병사단은 미군사상 최초로 흑백인 혼성사단으로 한국전쟁에 투입되어 인천상륙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한국전쟁에서의 흑인은 한국현대 소설에 최근에 이르기까지 심각할 정도로 훼손되어 드러나고 있다.

문충구국대 중군기자 김문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비내리는 산악지대의 열차 안에서 미군 브라운 군조)와 인터뷰를 한다. '브라운 군조'는 한국인들의 무표정한 모습과 적과 아군을 구별할 수 없는 옷차림새에서 공포감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는 한국인들이 한 번도 자신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고도 한다. 이런 나라를 위해 왜 싸워야 하는 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까지 말한다.<sup>6)</sup> 그는 결국 자신의 고향에 있는 자녀들을 생각해 한국의 어린이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결론을 내린다.<sup>7)</sup>

이 중군기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한국인들이 흑인병사와 소통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다. 한국인들 대개는 흑인을 볼 때,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으리라 짐작된다. 그런 흑인들이 어느 날 '점령군', 혹은 평화의 유엔군 천사가 되어 왔다는 사실을 말해주어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이다. 한국소설에서 흑인에 대한 반감 서술은 오랫동안 근대 미

5) '군조라는 계급표현은 일제 때 계급제도에 따른 것이다. 이후 한국의 소설들에는 '짜징', '루에트'라고 불리는 계급으로 오늘날 중사급에 해당된다.

6) 김문, 「북으로 가는 車中에서」, 『대구매일신문』 1950.11.3: 2.

7) 김문, 「북으로 가는 車中에서」, 『대구매일신문』 1950.11.6: 2.

디어와 교육 속에 스며든 백인문화에 의해 학습되어진 결과로 보인다. 한국인들의 흑인 차별의식 속에는 한국을 도우러 온 백인과 제휴함으로써 백인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고 흑인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생각만이 숨어있을 지 모른다. 일제강점기와 분단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인들의 피지배국민으로서의 백인에 대한 열등감을 표현 위에 떠오르지 않게 하는 대신 흑인과 관계된 모든 것을 부정하게 한다.

송병수 「소리 킴」(1957)은 전후 고아소재 소설로서 대표적이며 고아의 시점에서 미군부대 주변의 황량한 삶을 리얼하게 묘사한다. “수송중대 여남아 있는 김동이”들은 모두 따링누나와 자고 싶어한다. 그들은 쉬는 날엔 막사에서 춘화를 보며 자위를 하거나 술을 마시며 소리 킴에게 줄을 대 오 달리로 따링 누나를 사거나 한다. 이 중 ‘불독’이란 흑인병사는 따링누나가 “다시는 그놈의 김동이 녀석은 데려오지 마라”고 할 정도로 덩치가 커서 성행위가 어려울 정도이다. 그는 소리 킴에게 화대의 네 배인 ‘이십 달러’에다 ‘아광시계’까지 주면서 따링누나와 자고 싶어하는 집요함을 보이다가 성사가 되지않아 총으로 ‘소리킴’을 위협하기까지 한다. 「소리 킴」의 흑인들은 섹스나 밝히고 술이나 마셔대는 덩치가 큰 동물적인 모습으로 비추어진다. 그들은 헌병을 피해 부대물건을 팔거나 철조망을 넘어 양공주를 시는가 하면, 부대 근처에 얼썌대는 “한국인을 하나 둘 썸 쏘아죽여도 고만”이다. 이 소설 속에서 ‘졸때기’ 흑인병사들은 자신들의 본능 욕구만 채워주면 ‘소리킴’에게 선물도 주고 좋아하는 야만인으로 비쳐진다. 「소리 킴」은 전쟁 고아의 동심을 통해 전쟁의 비참 상을 고발하고자 하면서 흑인사병들의 행태를 충격적으로 그려 보여 줌으로써 이후 오랫동안 흑인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굳혀놓는 결과를 낳았다.

전후 신문연재소설인 「지상의 성좌」에서도 전쟁 고아들과 함께 흑인 혼혈아의 실태가 중요하게 등장하였다.<sup>8)</sup> 전쟁으로 부모를 잃은 명혜는 원래 만주의 독립투사의 딸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서 양친이 모두

죽자 명혜는 어쩔 수 없이 양갈보가 된다. 명혜는 흑인병사 사이에서 ‘찌미’라는 아이를 갖지만 명혜는 ‘찌미’를 고아원에 맡긴다. 고아원에 맡겨진 ‘찌미’는 우연히 명혜의 약혼자 였던 정우에 의해 입양된다. 정우는 고아원에서 찌미를 데려다 명혜의 고모인 박주나 여사에게 입양시킨 것이다. 명혜의 고모는 정우와 함께 고아들을 위한 밤 학교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럴 즈음 흑인병사가 명혜에게 돌아와 찌미와 함께 귀국하고자 한다. 명혜는 새삼 찌미를 찾으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친척들 앞에 나타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찌미로 인한 고통 때문에 명혜는 “나는 다리가 셋이야. 부모에게 받은 두 다리 외에 허영과 자학과 고뇌로 된 살덩이가 슬픔이라는 뼈대에 달라붙은 다리지. 아주 멋진 다리지, 그 다리가 쇠보다 더 굳어졌어”라고 자탄한다. 결국 찌미가 교통사고로 죽고 명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을 떠난다. 작가 최근덕은 이후 성균관장으로 오랫동안 유학의 중요성을 일깨워온 우리 시대의 산 증인이 되었다. 그가 20대 후반에 썼던 이 소설에서 한국 전통적 가족의 미덕을 중시하는 행간의 주제와 함께 양갈보의 가족사적 비극이 묘사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그러면서도 갈등의 핵심인 ‘찌미’가 갑작스럽게 차도로 뛰어 들어가 차에 치어 죽게된다는 결말 설정에서도 흑인 튀기의 존재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전후 우리 사회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 4. 반전과 반미의식 사이에서 튀어나온 ‘검둥이’

대상의 객체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전쟁 충격을 담고 있는 기치촌 소설은 이후 「외인촌 입구」(박순녀, 1964), 「엘리제 초」(박순녀, 1965), 「분지」(남정현, 1965), 「왕릉과 주둔군」(하근찬, 1963), 「아메

8) 최근덕, 「지상의 성좌」, 『대구매일』 1957.2.13-1957.6.27 (130회).

리카」(조해일, 1972), 「황구의 비명」(천승세, 1973), 「분노의 일기」(신상웅, 1972), 「해벽」(이문구, 1973) 등으로 이어진다(김윤식, 정호웅 379).

박순녀의 「외인촌 입구」는 대학생들이 미군 캠프 내 하우스 보이 하우스 걸로 일하면서 겪은 오만하기 짝이 없는 미국 군인들과의 갈등을 중심 소재로 한 반미 소설이다. '나'는 대학생으로 선배들 소개로 미군 부대 하우스 걸로 취직한다. 하사관인 커넬 빌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을 도둑질이나 하는 야만인들로 생각하여 대학생들만을 하우스 보이, 하우스 걸로 들인다. 커넬 빌과 그 친구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들이 한국인들을 얼마나 의심하고 멸시하는가를 알 수 있다. 커넬 빌과 같은 백인들은 한국인들을 '흑인'만도 못한 정도, 즉 '푸에리토 리코'수준으로 생각한다. 이 소설은 자본과 군사력에 있어서 우위를 지닌 미국이 얼마나 주변 문화권들에 대해 무지한가를 깨닫게 한다. 커넬은 순배를 시켜 여자인 나의 사물함 속의 속옷을 뒤지게 하고 군속인 미국여자가 한국인 하우스보이를 유혹하려 하였다는 사실을 진의와 상관없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소설은 커넬과 같은 미국인들 스스로가 오리엔탈리즘으로부 터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가를 리얼하게 묘사한다.

박순녀 「엘리제 초」에서 흑인이 사는 아프리카는 '살인, 사기, 혈투, 유괴, 총성'이 난무하는 저주받은 땅으로 여겨진다. 역으로 백인 혼혈아인 엘리제는 미화된다. 「엘리제 초」에서는 놀랍게도 백인의 우월한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흑인을 희생양 삼아 자신의 열등감을 상쇄하려는 전술은 서구 제국주의 담론의 충실한 재현이다. 유주현 「태양의 유산」(1957)에서도 흑인 혼혈아를 낳은 삼순이는 아버지에 의해 쫓겨나는데, 하근찬 「왕릉과 주둔군」에서 백인 혼혈아를 낳은 금례는 받아들여진다. 이동하 단편 「전쟁과 다람쥐」(1966)에서 주인공 소년은 사람을 잡아먹을 듯 귀신같은 검둥이 병사보다 코가 크고 거인 같은 백인 병사가 낫다고 생각한다(최강민 234-235).

남정현의 「糞地」에서는 오만한 백인 상사 스피드를 응징하는 복수극이 등장한다. 상사의 부인을 능욕하는 식의 복수극은 다분히 억지스런 풍자이다. 작가는 일부러 최인훈의 「총독의 소리」 문체를 모방 구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소설은 소위 ‘분지사건’으로 알려진 필화사건을 겪어야 했다. 만약 백인상사 스피드를 ‘흑인 상사’로 바꾸었더라면 그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다(남정현 187-218). 한국에서 미군에 대한 반감은 ‘깜둥이’라는 비어를 상용하면서 해소되는 듯하다. 놀랍게도 ‘검둥이’ ‘깜둥이’라는 인종 차별적 표현은 한국 소설작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마치 객관적인 사실인양 받아들여지고 있다. 흑인남자의 동물적이고 비천한 이미지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외 없는 하나의 믿음으로 강화되어갔다.

70년대에 이르러 반미, 반전소설에서 흑인은 불결하거나 혐오의 느낌이 아닌 좀더 폭력적인 가해자의 이미지나 공포의 얼굴로 등장한다. 조해일 「아메리카」는 기지촌의 양공주들의 삶을 매우 밀도 있게 그린 중편 수작이다. ㄷ읍 기지촌에서 한순옥이라는 여성이 흑인병사에게 목이 졸려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난다. 기지촌 여성들은 ‘썸바귀 회’라는 친목단체를 통해 억울하게 죽은 한순옥을 위해 장례를 치러준다. 각목 위에 붓글씨로 적힌 무덤 앞에서 주인공 ‘나’는 죽은 순옥에 대한 악몽을 떠올린다. “그 절망적인 몸짓, 머리채를 잡아끄는 검둥이의 그 광포한 손아귀를 벗어나보려고 필사적으로 할퀴어대던 그 무력한 손짓과 활처럼 잔뜩 뒤로 휘어져 종종걸음을 치며 끌려가던 그녀의 별거벗은 몸뚱어리가 다시 악몽처럼 눈 뿌리에 채였다”(조해일 67). 「아메리카」 이후 기지촌 양공주들의 삶의 이야기는 더욱 대중화되어 갔다. 이는 「황구의 비명」(천승세), 「아베의 가족」(전상국), 「고삐」(윤정모),나 「무기의 그늘」(황석영), 「공존의 그늘」(이윤섭), 「은마는 오지 않는다」(안정효) 등 반미, 반전소설의 계통으로 발전된다. 문제는 유독 흑인들이 가해자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다.

천승세 「황구의 비명」에서도 흑인은 기지촌 여성을 짓밟는 성적 가해자로 상징된다. 주인공인 나는 아내의 심부름으로 돈 이십만원을 받으러 파주 용주골에 간다. 담비 김, 즉 은영은 아내의 고깃 돈 십만 원을 떼어먹고 밤도망을 친 술집여자였다. 나는 은영을 만나 하룻밤을 지낸다. 은영은 어떻게든 나를 유혹해서 상황을 모면하려하는데, 나는 정작 돈을 받기는커녕 돈오만원을 주며 고향으로 떠나라고 하고 돌아온다. 이 소설에서 여관 방 앞에 놓인 두 켄레의 신발의 의미는 흑인병사와 기지촌 여성의 성매매 관계 이상으로 강대국에게 순응하는 약소국의 처지를 상징한다. 흑인 병사의 거대한 신발과 담비 김의 외씨 고무신의 대조는 마치 커다란 수캐의 발정에 비명을 지르며 강간당해야 하는 황구의 이미지로 이어진다. 더위에 혁혁대는 흑인병사의 벌건 혀와 황구의 비명소리 그리고 한 여름의 동물적 본능처럼 흐르는 느릿한 개울과 산천, 이러한 풍경을 배경으로, 딸을 찾아 동두천에 왔다 아사한 할머니의 시신이 비극적으로 전경화되는 것도 그러한 정서를 대변한다.

전상국 「아베의 가족」(1979)은 유신말기에 발표된 소설이다. 임산부를 강간한 미군의 이야기를 발표하기엔 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는 시기였다. 이 소설은 근 4년 만에 미군이 되어 돌아온 ‘나’의 관점에서 쓴 ‘아베’에 얽힌 가족사적 이야기이다(9-76).

장애인 아베는 한국전쟁이 남긴 피할 수 없는 재앙이었다. 전선이 38선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이 피난을 가지 못한 춘천 샘골 부면장 최씨의 마당 앞에 대여섯 명의 외국군인들이 들어선다. 그들은 최 씨 여주인과 며느리를 번갈아 가며 강간한다. 며느리는 임신 중이었고 남편은 의용군으로 끌려간 뒤였다. 얼마 뒤 며느리는 저능한 팔삭둥이 아베를 낳았다. 혼혈아 ‘아베’는 평생 말이라고는 ‘아베’ 밖에 하지 못한다. 고통을 참다못해 결국 가족들은 LA로 이민을 갔다. 물론 아베는 고아원에 맡기었다. 그러나 LA에서의 생활이 즐거울 리 없었다. 조울증에 시달리는 어머니, 흑백황의 인종차별, ‘나’는 여동생 정희가 흑인들에게 윤간

당하고 있을 때, 잭나이프로 자해하여 그들을 쫓기도 한다. 나는 “깜둥이들은 미개하고 천한 만큼 겁이 많고 비열했다.”고 내뱉는다. 「아베의 가족」에서 흑인에 대한 주인공 나의 분노와 적대감은 “그들의 검고 끈적끈적한 살갓 그 깊숙한 데서 팔팔 쏟아지는 피를 두 손으로 받아 이웃 사람들 눈앞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할 정도로 심각하게 드러난다.

배타적인 가족주의 집합성에는 에릭 프롬이 지적하였듯, 이기적인 자기동일성을 추구하는 경향이 스며들 수 있다. 이타적인 타자 지향이 자기동일성 몰입을 막고 화합과 이해로 나아가지만 자기 동일성만을 지향하는 자기애는 이기심과 타나토스적 욕망에 휘말리게 되어 결국 자기해체적인 죽음의 원리에 이르게 된다.<sup>9)</sup> 자기 동일성애의 맹목적 집착은 자기자신을 자기중심적인 폐쇄회로에 가둠으로써 중국에는 자기해체에 이르게 한다. 자살과 할복, 동종교배의식, 자기연민은 가끔 자기 혈통에 집착하여 가문을 중시하는 폐쇄적 가족주의와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인종의 배타성과 관련하여 한국현대소설들은 전통 가족주의와 관습의 폐해를 지적하기도 한다. 안정효 「은미는 오지 않는다」는 흑인병사에게 강간당한 죄로 마을에서 내쫓기지만 기지춘 양갈보가 되어서라도 악착같이 살아가는 여인의 이야기이다.

소설에서 은미는 장군봉의 전설 속의 장군이 백마를 타고 와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해줄 희망의 상징이 되고 있다. 그런데 영어판 소설 제목은 은색 종마, 수컷말 (silver stallion)로 되어 있어서 성적인 분위기가 암시되어있다. 이 소설에서도 유엔군들이 점령한 지역의 강간 장면이나 ‘텍사스 촌’과 ‘밤나무 집’에서의 ‘검은 군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들이 아무런 전제없이 등장한다. 여주인공 언레는 서른셋 과부인데, 푸른 눈을 가진 백인 군인과 흑인에 의해 윤간을 당한다. 그로부터 그녀는 마을에서 배척받는다. 그녀의 후견인이었던 촌장 황 노인조차도 “일

---

9) 에리히 프롬. 『인간의 마음』.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1994 참조.

찍이 절개를 잃은 부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례를 떠올릴 뿐 언레의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한다. 아이들조차 언레의 아들 만식을 왕따시킨다. “니 엄마가 감동이하고 씩했대지? 그런 놈하고 어떻게 놀아 주니?”라는 찬들의 말에 준이도 “니 엄마는 감동이하고 했기 때문에 감동이 새끼를 낳을 거라고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172)고 거든다. 언레는 아이들과 먹고 살기위해 강건너 ‘텍사스 촌’에 몰래 다니는데, 여주인은 언레에게 “손님을 골라 받아야 해, 감동을 받는 애들은 흰둥이들이 절대로 같이 자지 않아 흰둥이를 상대하던 애들은 나중에 감동을 받아도 되지만 감동이 받다가 흰둥이 받는 건 안 돼”라고 충고한다. 그녀는 한 술 더 떠 “감동이는 그게 아주 췌서 놀기는 좋지만 무식하고 더러운 애들이 많고 기마이도 쓸 줄 몰라”(180)라고 주석까지 달아준다. 전시 흑인병사에 대한 학습 효과는 한국인들에게 하나의 믿음처럼 퍼져 갔다. 전시에 누군가가 ‘흑인은 성적으로 췌다’라고 말했고 그에 대한 믿음이 ‘흑인은 성적으로 췌다’라는 사실을 일반화시키게 된 것이다.

이런 흑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언레 스스로도 하였고 때문에 그녀 역시 몰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 언레는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살갗이 꺼먼 아이를 낳는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하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창피하고 온몸이 더러워 스멀거리는 기분을 느껴 수수깡을 낫으로 잘라 배를 콕 찌르고 당장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115)으로 불안해하기도 한다. 흑인과 관련하여 언레가 갖는 참담한 느낌은 해방이후 80년대 반미소설에서 더 많이 통용된다.

이윤섭 「공존의 그늘」 1부에 등장하는 한국의 카츄사 부대 장병장은 매력적인 외모와 담력을 가지고 백인여자들에게도 인기가 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백인장교들에게 미움을 사고 급기야 강제 전출을 가게 된다. 장병장이 카츄사에서 겪는 것은 백인들이 갖고 있는 한국인에 대한 편견과 근거 없는 우월감이다. 장병장은 강박적으로 악몽을 꾀다. 악몽은 거대한 흑마 아래 오줌을 받아먹는 한국 여자 무당의 모습이다. 흑마

의 거대한 성적 이미지는 소설 속에서 미국에 대한 피해의식과 불안감을 상징한다. 전후 소설과 분단소설들은 대체로 파시즘적인 인종 차별을 통해 한국 전통적 가족집합 간의 경계를 짓고 있다. 그러나 인종차별을 넘어선 탈경계적 가족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다.

흑/백/황 인종 간의 탈경계적 가능성은 「아메리카」의 썸바귀 회의 활동, 「아베의 가족」의 어머니의 사랑 등에서 엿보인다. 하위주체적인 이들 여성들의 연대와 사랑은 인종차별의 대립적 구도를 뛰어넘는 감동을 주고 있다. 「아메리카」에서 기지촌 순옥이는 미군 스탠리를 따라 미국으로 간다. 순옥은 녹음하여 보낸 육성 편지에서 기지촌에서의 생활이 ‘행복한 생활이었다구 말할 수 없음’에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사람이 산다는 게 … 뭔지 모르겠어요. 왜 제 고장에서 못 사는지 … 김치 같은 건 안 먹어도 좋아요. 시부모들도, 남편 스탠리두 담겨 먹는 걸 허락해줬어요”(조해일 87)라고 울먹이는 순옥은 이미 혈통을 넘어 새로운 가족 집합을 구성하고 있었다. ‘아줌마, 숙자, 케니, 설자, 남순이, 춘희, 애란이 …’ 이름을 들먹이다 ‘흑’하고 흐느끼는 순옥의 목소리에서 그녀들이 자구책으로 만든 ‘썸바귀회’라는 모임의 의미를 떠올리게 된다. ‘썸바귀회’는 한기옥이 흑인사병에게 살해당하였을 때 한기옥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도 이들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새로운 가족집합을 형성하게 하는 토대가 되었다. 미국에 간 순옥은 먼저 자리잡은 바비엄마, 영자, 이순이와 연대하고자 한다. 그들은 미국 내에서 백마일 팔십 마일 떨어져 살지만 끊을 수없는 관계를 맺는다.

「아베의 가족」소설 마지막 부분에서 ‘아베’가 고아원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는데 여기서도 탈경계적 가족 집합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수몰된 고향 샘골 집을 아베와 함께 어머니가 찾았다고 하는 한 주민의 전언 사실은 어머니가 끝내 아베를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한국의 유교적 가족의 탈경계적 가능성은 이처럼 하

위계층여성의 연대성과 어머니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 5. 다문화 가족의 인종 넘어서기 실험

문순태 「느티나무와 어머니」는 흑인여자와 결혼한 한국남자의 가족적 집합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나는 가난과 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국으로 갔다. 미국에서 흑인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것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어머니조차도. 그래서 나는 이십년만어야 다 자란 아들 헨리와 함께 충청도 산골에 사는 노모를 뵈러 간다. 어머니는 내가 뉴욕에서 벤자민(변호사)과 혼인할 때 신부가 흑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귀국해버렸다. 혼전에 어머니에게 아내가 미국인 변호사라는 말만 했기 때문이다. 그 뒤로 어머니는 몇 번 초청해도 모자간 연을 끊었는지 아들을 보러 오지 않았다. 아내 벤자민의 아버지는 멕시코인이고 어머니는 아프리카 이민 2세이다. 나와 벤자민 사이에서 태어난 헨리는 흑인이고 헨리의 여자 애인은 인도 드라비다족 혈통이다. 게다가 나와 벤자민 사이에 입양한 헨리의 여동생은 베트남인이다. 이들은 모두 인종차별적 어려움을 딛고 아시안 아프리카인 히스파닉이 모여 미국인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 이들 아프리카, 아시아, 히스파닉 인들은 미국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게 되기까지 저마다 고난의 흔적을 갖고 있었다. 아무리 그들이 세계금융자본의 중심국가에 살고 있다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이 속한 민족 국가가 미국에 대해 종속적 입장이라는 데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소설에서 중요하게 바라본 것은 혈통을 넘어서 아이덴티티에 대한 것이다. 이십년 만에 아버지 나라를 방문하는 헨리는 아버지에게 비행기 안에서 이렇게 항의한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환경과의 교섭을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어, 생각이나 행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도 현재의 자기는 과거의 자기와 같은 자기이며 또 내일이나 미래의 자기와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나는 분명 대디의 아들인데도 대디는 황색인이고 나는 흑인이지 않아요. 나는 한국인도 아니고 한국적이지도 않지 않아요. 내게 한국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산드라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또 어떨지요? 아이덴티티는 학문적 용어일뿐이라고요. 오늘날, 국적이니 혈통이니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문순태 97-98)

「느티나무와 어머니」는 동일성의 등식을 믿는 혈통주의만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헨리는 인간은 존재 그 자체로서 혈통적 아이덴티티만을 고집하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인간은 시시각각 바뀌는 장소와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유전하는 존재이다. 늘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존재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변함없는 자신의 동일성, 자신의 정체성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만약 자신이 어떤 성격의 인간이라는 믿음이 없다면, 자신에 대해 더 불안해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과거의 기억은 나의 존재를 만들어준 희미한 옛 추억의 그림자이지만, 그것은 내 존재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흑인 여자와 만나 사랑을 나눈다. ‘나’는 지난 20여 년간의 미국 생활에 대해 만족한다. 아내와의 사랑이 그것을 입증한다. ‘나’가 결혼해 살면서 체험하여 깨달은 것은 부부관계의 집합성이란 관습, 언어, 피부색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실천행위 안에 있다는 것이다. 부부간의 사랑에서 피부색이나 인종차는 생래적인 것에 불과하지 문화라 부를 수 없는 것이다. 다문화 가족의 피부 색은 헨리의 말대로 ‘사랑의 색깔’이라고 규정지어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어머니의 완고한 존재로 인해 민족이나 인종중심의 혈통적 가족집합성이 허구적이라는 것을, 또는 '나'가 갖고 부부중심의 가족 집합성이 허구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역으로 증명해주지 못한다. 한국에서 아버지 없이 이십여 년 간 '나'를 홀로 키운 어머니의 모습이 '내 앞에 허리를 구부리고 서 있는 늙은 여자'(문순태 104)로 낮설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20여년 만에 마주한 어머니의 낮설음은 인습적인 한국사회에서 홀로 싸운 하위주체여성의 삶의 흔적이 삭제됨을 의미한다. 삭제된 하위주체여성은 완고와 집착의 어머니로 편향되어 보여질 수밖에 없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어머니의 지난 세월이 하얗게 바래고 있는 이상 "오늘날 국적이니 혈통이니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라는 헨리의 반문에 동의하기 어렵게 된다.

이 소설에서는 다문화 가족에 속한 아프리카 2세인 장모님이 자신이 물려받은 다이아몬드를 한국에 있는 나의 어머니에게 전해주라는 행동과 배려가 주목된다. 아프리카 출신의 장모가 준 '다이아몬드', 이를 통한 인종차별의 벽을 허무는 소통 의지는 한국과 흑인 사이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한국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전히 상실의 흔적은 남는다. 하위주체로서의 여성, 전통적 어머니의 입장이 숨겨짐으로써 다민족 다문화의 세계화 가족의 형성에 쉽사리 편승하기 곤란한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그렇다 해도 「네티나무와 어머니」는 다문화적인 가족적 집합성, 사랑으로 결집된 가족 구성원들의 집합성을 긍정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새로운 가족군의 집합 가능성을 우리는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기존의 가족 집합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아야한다. 즉, 전지구적 자본중심주의 시대에는 그 어떠한 순수성도 순수 자체로 존재하기 불가능하다는 스피박의 말대로 아래로부터 전지구적인 집합성을 상상하고 나아가는 것이다(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141-190). 「네티나무와 어머니」에서 흑인여자와 한국남자를 부모로 둔 헨리는 인도여자를 만나 사랑하게

되면서 대학에서 전공을 바꾼다. 실리콘 벨리의 컴퓨터 학과를 포기하고 인도 불교 그림을 전공하겠다고 한다. 아프리카 2세 장모는 이십년째 자식과 연을 끊고 사는 한국의 사돈 할머니에게 대대로 이어온 아프리카 가보인 다이아몬드를 전해주고자 한다. 이 같은 작은 행위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소설에 비친 흑인상의 모습과 많이 다르다. 장모에게서 하위주체여성들끼리의 소통을 향한 작은 손짓들이 보이며 혼혈아 헨리에게서는 로칼리티에 대한 진정성이 보인다. 적어도 헨리가 시공간을 넘어 상상하고 있는 힘은 넓고 폐쇄적인 가족 집합 경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을 이루어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다.

## 6. 결론 - 한국 가족 집합성의 탈 경계적 변화의 가능성

지금까지 우리는 해방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 소설들에 언뜻언뜻 투영된 흑인의 모습들을 검토하였다. 한국현대소설에서 흑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해방공간에서 주요섭 「혼혈」에서는 흑인 튀기에 대한 차별을 경계하고자 하였지만 한국전쟁 이후 소설 속의 흑인은 한국을 여성, 미국을 남성으로 대립시키는 이항 대립구조 속에서 언제나 동물적이거나 가해적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이다.

해방기 소설 주요섭 「혼혈」, 염상섭 「양과자 갑」으로부터 50년대 송병수 「쇼리킴」과 신문소설 「지상의 성좌」, 60년대 박순녀 「엘리제초」, 70년대 조해일 「아메리카」, 전상국 「아베의 가족」, 80년대 안정호 「은미는 오지 않는다」에 이르는 동안 소설 속에서 황/흑, 흑/백은 의식적으로 흑은 무의식적으로 대립구조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해방기 주요섭의 「혼혈」에서 우려한 정도의 수준을 극복하지 못한 인종차별의 양상을 보

여주었다. 그렇다고 이들 소설 속에서 이러한 피부색의 차별을 넘어서고자 하는 새로운 집합적 가능성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아메리카」의 썸바귀 회, 「아베의 가족」에서 끈질긴 모성에 등은 전지구적 시대의 새로운 집합성을 담보한다. 이들이 꿈꾸는 가족은 하위주체여성들이 연대할 수 있는 로컬리티를 통해 '전지구화'의 취약한 부분을 뚫고 형성되어가는 새로운 가족 집합성이다. 「느티나무와 어머니」는 한국남성이 흑인여성과의 혼인을 통해 다문화가족을 형성한 보기 드문 이야기였다. 이 소설은 '동일성 지향'의 유교적 가족으로부터 '타자 지향성'의 다문화 가족의 탈 경계적 가능성을 내비치고자 하였다. 헨리의 '사랑의 색깔'론과 아프리카 2세인 장모의 다이아몬드 선물은 완강한 흑/백/황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어가는 썰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소설들은 흑인의 동물적 행동과 가해자적 모습을 조야하게 내비침으로 해서 한미간, 인종간의 대립적 모순을 탈 중심, 탈 경계, 탈 식민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한국현대소설 속의 흑인상의 혼종적 틈새는 전지구적 시장경제 환경의 변화와 다원화된 개방성으로 인해 점차 메꾸어 질 수밖에 없다. 한국소설에서 최근 이러한 다문화 가족적 시각에서 창작이 늘고 있는 현상도 본고의 논의로 이어갈 수 있다. 네팔 남자와 한국여자와의 사랑의 비극을 그린 『나마스테』(박범신, 2005)나 한국남자와 조선족 여자와의 비극적인 이야기 『잘가라 서커스』(천운영, 2007), 조선족과 농어촌 하층여성들의 연대성을 묘사한 연작소설 『유랑 가족』(공선옥, 2005), 국내의 해외 노동자의 이야기를 풍자한 단편소설 집 『카스테라』(박민규, 2005) 등에서 재현되고 있는 혼종적인 새로운 가족 이야기야말로 탈경계적 가족의 전망에 다름 아닐 것이다. 한국인의 삶의 현실배경에는 오랫동안 인종차별적인 유교적 가족의 집합성이 전제되어 있으리라 추정된다. 혈통과 가문을 중시하고 가족공동체적인 사회를 형성해 온 까닭에 피부색과 혈통이 다른 이들을 유교적 공동체 안으로 통합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흑인 비하의 소

설들이 이미 교과서나 문학 책에 등장하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화된 작품도 있는 현실 속에서 더욱 그러하다. 해방과 전후 분단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소설 속에서 한국인이 흑인을 대하는 태도는 한민족의 전통 가족 정신과 문화유산에 대해 새롭게 성찰하게 한다.

한국 전통적 가족을 긍정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유교적 가족이 “修身齊家治國平天下”의 ‘통합적 가족’이기 때문에 서구형인 ‘오이디푸스 가족’보다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나병철 259-281). 유교적 가족은 수신과 제가를 기본으로 하여, 조상에 대한 숭배와 경건성, 곧 믿음에서 조상의 혈통의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교적 가족의 실태는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 유교적 가족은 간간이 남성 가부장의 극단적 모습으로 탈바꿈되어, 여성작가에게 혹은 해외 이민 한인작가들에게 비난의 소재로 자주 등장한다. 박완서, 은희경, 전경린 등 한국 페미니스트 작가들과 ‘엘리자베스 킴’, ‘이창래’, ‘노라옥자’ 등은 유교적 가족이 지나치게 가부장적 혈통주의나 배타적 민족 감정을 내세운다고 비판한다.<sup>10)</sup> 그들은 유교적 가족이 남성 가부장제, 여성 순결주의, 삼종지도와 같은 악습을 남겨놓았다고 본다.

배타적인 가족주의나 민족주의는 본래의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한다. 진정한 정체성이란 자아의 동일성이 순수하게 존재한다고 믿는다거나 이를 확장해간 자아 개념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체성이란 강요되고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외부환경과 끊임없이 교섭하면서 어려움을 딛고 성숙하는 도중에 저절로 형성되어 자아에게 다가오는 뿌듯한 느낌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가족의 집합성에 최초 뚜렷한 이념이나 경계가 있을 수 있다. 최초의 모든 집합에는 절대적이라고 생각되는 경계가 전제되어 있을 뿐이다. 순수한 집합성(Collectivities)을 끊임없이

10) 김의락, 『경계를 넘는 새로운 글쓰기-아시아계 미국문학연구』, 서울: 신아사, 2003 참조.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배타적 타자성에는 환원할 수 없는 인지적 실패가 스며들어 있다. 인종 차, 성차 등 모든 동일자와 타자성의 차이와 그 동질성을 내포한 배타적 집합성에는 불가피하게 ‘미결정성’(undecidibility)이 스며있다. 스피박은 데리다의 글을 인용하여 모호한 집합성의 관계에는 반드시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을 논증한 바 있다. 백인 제국주의와 제휴함으로써 파생된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흑인에 대한 모습은 탈식민적 상황에서 ‘제3의 간극’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 가족은 본질적으로 흑인에 대한 배타적 집합성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탈식민적 집합의 상상은 다른 집합의 상상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한국 가족의 새로운 집합 가능성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역사보다 진실하다고 한 상상력(teleopoesis)으로 실현될 것이다. 흑인의 노예해방과 여성의 참정권 쟁취가 그렇듯 모든 진보적 정체성은 하나의 텔레포에시스,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부터 가능해진다. 다문화 가족 집합성의 상상력들, 그것들은 좀 느리고 동기가 순결하지도 못하지만 뜻하지 않게 현존하는 삶의 한 복판을 뚫고 들어와 우리들이 믿고 있던 경계선 이론들, 그들이 주도하는 체계모니를 급진적으로 분쇄해버릴 것이다.

## 참고문헌

- 공선옥. 『유랑가족』. 서울: 창작과비평, 2005.
- 김문. 「북으로 가는 차중에서」. 『대구매일신문』. 1950.11.3-1950.11.6
- 김상률, 오길영 엮음. 『에드워드 사이드 다시읽기-오리엔탈리즘을 넘어 화해와 공존으로-』. 서울: 책세상, 2006.
- 김영룡. 「포스트모더니즘의 경계이론과 심미화의 과정」. 『문학의 탈경계와 상호에술성』. 서울: 아카넷, 2009. 213-227.
- 김윤식, 정호웅. 『한국소설사』. 서울: 문학동네, 2000.

- 김의락. 『경계를 넘는 새로운 글쓰기-아시아계미국문학연구』. 서울: 신아사, 2003.
- 나병철. 「오이디푸스 가족과 유교적 가족, 그리고 자연의 가족」. 『가족로망스와 성장소설』. 서울: 문예출판사, 2007. 259-281.
- 남정현. 『남정현대표소설선집』. 서울: 실천문학사, 2004.
- 문순태. 「느티나무와 어머니」. 『울타리』. 서울: 이룸, 2006. 73-104.
- 박민규. 『카스테라』. 파주: 문학동네, 2005.
- 박범신. 『나마스태』.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04.
- 박순녀. 「외인촌 입구」(1964). 『박순녀작품집』. 서울: 지만지고전선집, 2010. 59-100.
- \_\_\_\_\_. 「엘리제 초」(1965). 『박순녀작품집』. 서울: 지만지고전선집, 2010. 101-133.
- 백소영. 「19세기를 사는 21세기의 그녀들: 개신교 도시 미혼 여성의 젠더의식과 문화혼종성」. 『탈경계 시대의 지구화와 지역화』3.3 (2010): 328-363.
- 송병수, 곽학송. 『소리길 / 철로』(한국소설문학대계 38). 서울: 동아출판사, 1995.
- 안정효. 『은마는 오지 않는다』. 서울: 고려원, 1987.
- 엄동섭. 「색 있는 슬픔의 연대성-해방기의 흑인시 연구」. 『탈식민의 텍스트, 저항과 해방의 담론』 문학과 비평 연구회. 이회, 2003. 157-199.
- 에리히 프롬. 『인간의 마음』.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1994.
- 염상섭. 「양과자갑」. 『해방문학선집-단편집』. 서울: 종로서원, 1948. 79-112.
- 이운섭. 『공존의 그늘』. 서울: 도서출판 다나, 1988.
- 전상국. 「아베의 가족」(1979) 『전상국-제3세대한국문학』. 삼성출판사, 1980. 9-76.
- 조해일. 『아메리카』. 서울: 고려원, 2000.
- 주요섭. 「혼혈」. 『大朝』4-2 (1949.7): 141-146.
- 천승세, 남정현. 『황구의 비명, 분지』. 서울: 동아출판사, 2000.
- 천운영. 『잘가라 서커스』. 서울: 문학동네, 2005.
- 최강민. 「미국식 근대로의 질주, 동양적 주체의 제한적 복원」. 『탈식민의 텍스트, 저항과 해방의 담론』. 문학과 비평연구회. 서울: 이회, 2003. 221-245.
- 최근덕. 「지상의 성좌」. 『대구매일』. 1957.2.13-1957.6.27.
- 최민순. 「밤의 일기」. 『천주교회보』. 1951.3.20-1953.2.5.
- 피종호. 『문학의 탈경계와 상호 예술성』. 서울: 아가넷, 2009.
- 가야트리 스피박. 『다른 세상에서』. 태혜숙 옮김. 서울: 도서출판 여이연, 2003.

- \_\_\_\_\_. 「전지구성」. 『경계선 넘기- 새로운 문학연구의 모색-』. 문학이론연구회  
윤희, 서울: 인간사랑, 2008. 141-190.
- 에리히 프롬. 『인간의 마음』. 황문수 역. 문예출판사, 2002.
- 호미 바바. 『문화의 위치』. 나병철 역. 소명출판사, 2005.

Beyond the Significance of a Boundary :  
Korean Families' Images of Blacks in Korean Novels

Han, Myeong Hwan  
(Anyang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s of black people whose images have been projected through Korean novels written since the liberation of Korea. It is hard to find positive depictions of blacks in modern Korean novels. From the novel *HonHyeol* (Mixed-Blood) 1947, despite the author YoSup Ju's attempt not to discriminate against mixed-blood people, blacks in Korean novels always took the role of diabolical figure in the binarism of Korean women and American men. From novels such as BeaugSu Song's *Shorikim* 1957 and KeunDeok Choe's serialized story, *The Star Seat of the Earth* 1957, SunNyeo Bark's 1960s novel *Elize's Portrait*, Healll Cho's 1970s *America*, SangGuk Jeon's *The Family of Abe*, to JungHyo Ann's 1980s *The Silver Stallion*, the setting of yellow/black and black/white has always been understood as implying antagonistic relationships, either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The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of different color was even more serious than what YoSup Ju's *Mixed-Blood* portrayed. However, this doesn't mean that the novels have shown no possibility of overcoming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of different color. Although too little, the whore's Club (SSembangui ; Lettuce)'s solidarity in America and Mother's loving in *The Family of Abe* support the new possibility of the collectivities of the Global Age. In these novels, there are positive collectivities formed through the solidarity of 'subaltern women' a word used by Spivak. All of the women dream of a new family in reaction to their old egoistic family. *Zelkova Tree and Mother*, 2006, by Suntae Mun, stands as the only story that portrays a Korean man marrying a black woman. This tries to show a new possibility of change, not of identity, but about altruism toward the differences of multiethnic families. "Henri's logic of skin color" and the "diamond present" of the wife's mother in *Zelkova Tree and Mother* drives a wedge between discrimination and color. Most Korean novels represented ironically the postcolonial contradiction between black people's social status and Koreans' obvious discrimination against them through the novels' negative descriptions of blacks. The discrimination against black people in Korean novels reflected "mis-recognition", by Spivak, between globalism and post-colonialism. Koreans' attitudes toward blacks sprang from the Confucian family system in Korea and the resistant nationalist retrospective during the American Military's controlling age of the Korean Peninsula. A real identity forms and grows not from exclusive familism and nationalism but through self-controlling endeavor, compromise, and negotiation. Nobody can give anyone an identity through strength and threats. A real identity cannot come from one who believes in keeping pure blood and tries to advocate families. Correct formation of identities comes not from the "perhaps" of a strategic politician, but through "teleopoiesis" (Imaginative power transcending time

and space) in Aristotle's *Poetics*. Good poetic imagination can give a new sort of collectivity to family, such as a communicational multiethnic family. As in the emancipation of slaves and the gaining of women's suffrage, all the right ideas become possible through teleopoiesis, imagination that works beyond boundaries. A new concept of family is possible through the new collective teleopoiesis of multiethnic families that The new idea, even though it has come neither gradually nor in purity, will pulverize the hegemonies of the old collectivities of binarism we once believed.

주제어: 흑인 차별(discrimination of black people), 한국현대소설(korean modern story), 유교적 가족(korean confucian family), 탈경계 의미(beyond boundary meaning), 집합성(colletivities), 세계화(globalism), 하위주체여성(subaltern women), 지역성(locality), 시적 상상력(teleopoiesis), 민족주의(nationalism)

논문제출일: 2011. 08. 15
심사완료일: 2011. 09. 10
게재확정일: 2011. 09. 15